

‘밀양’ 전도연, 제 60회 칸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쾌거

순수·도발 ‘팔색조’ 연기...세계의 연인으로

■ ‘칸의 여인’ 전도연은

송강호·최민식·설경구 등 남자 배우들에 비해 여자 배우들의 존재감이 미약한 한국 영화계에서 전도연은 오랜 기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연기자다.

이번 칸 영화제 수상으로 세계 영화계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번에 받은 전도연은 이미 지난 10년 동안 10편의 작품을 통해 백상예술대상·청룡영화상 등 국내 모든 영화제 연기상을 휩쓸며 최고의 여자배우임을 입증해 왔다.

전도연은 ‘동일한 배우의 출연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해 내 평단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왔으며 ‘접속’ ‘약속’ ‘스캔들’ ‘너는 내 운명’ 등 흥행작들을 통해 일반 관객들과도 소통해 왔다.

스크린 진출 10년...한국 대표 배우

◇ 불륜녀부터 17세 시골 소녀까지=1990년 한 화장품 회사의 모델로 데뷔한 전도연은 드라마를 통해 연기를 시작했다. ‘젊은이의 양지’ ‘종횡무림’ 등의 드라마에서 ‘귀여운 여동생’ 이미지를 쌓아왔던 그녀가 영화계에 입성한 건 1997년.

심은하의 대타로 한석규라는 당대 최고의 배우와 호흡을 맞춘 ‘접속’을 통해 새로운 감성연기를 보여준 전도연은 흥행 성공과 함께 청룡영화상 등 그해 각종 영화제 신인여우상을 휩쓸며 충무로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이후 멜로 영화 ‘약속’(1998)에서 조직폭력배를 사랑하는 여의사로 출연, 흥행몰이를 일으킨 전도연은 순박한 17살 시골 처녀로 분한 ‘내 마음의 풍금’(1999)을 통해 연기의 폭을 넓혀 나갔다.

전도연이 다른 여배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 영화는 파격적인 노출신과 베드신을 선보인 ‘해피엔드’(1999)의 불



27일 막을 내린 제60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전도연이 여우주연상 수상자로 호명되자 이창동(사진 왼쪽) 감독과 배우 송강호(오른쪽)가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륜녀 역할을 통해서였다. 이후 첫 사극 작품인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2003), 터프한 여자의 이미지를 선보

‘접속’ ‘약속’에서 ‘밀양’까지 ‘천의 얼굴’

인 ‘괴물 눈물도 없이’(2002) 등에 출연한 전도연은 1인 2역을 했던 ‘인어공주’(2004)와 에이즈에 걸린 다방 레지 역할을 맡았던 ‘너는 내 운명’(2005)을 통해 절정의 연기력을 선보였다.

◇ ‘밀양’-또 한번의 도약=한석규, 송강호, 최민식, 설경

구, 이병헌, 박신양 등 당대 최고의 남자배우와 함께 출연하면서도 전혀 기가 눌리지 않았던 ‘연기의 달인’ 전도연에게도 10번째 영화 ‘밀양’은 만만치 않은 작품이었다.

당초 시나리오를 읽은 후 이창동 감독에게 “도저히 못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촬영이 시작된 후에도 연기 인생 처음으로 먼저 촬영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위낙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여 ‘더 이상 보여줄 게 있을까’라는 애절한 우려를 받기도 했던 전도연은 ‘밀양’을 통해 “전도연은 아직도 보여줄 게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인간의 본질·용서와 구원의 한계 그려내

■ 전도연 주연 영화 ‘밀양’은

‘초록 물고기’, ‘박하사탕’의 이창동 감독이 4년만에 메가폰을 잡은 ‘밀양’은 삶의 막다른 길에 다다른 한 여인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과 신과 구원의 문제 등을 되짚어 본 영화다.

영화가 공개된 후 ‘설경구에게 ‘박하사탕’, 송강호에게 ‘살인의 추억’이 있다면, 전도연에게는 ‘밀양’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밀양’은 여자 주인공 ‘신애’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남편이 죽은 뒤 새로운 삶을 위해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찾아온 신애는 아들이 유괴돼 살해 당하자 비탄에 빠진다. 교회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은 신애는 살인자를 용서하기 위해 그를 만나



23일 개봉 후 5일간 35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밀양’은 전도연의 수상으로 예매율이 급증하는 등 흥행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만 이미 신애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말에 인간과 신에 대해 절망하고 만다. 이창동의 ‘별레 이야기’가 원작이며 송강호가 신애 주위를 맴도는 ‘종찬’으로 출연, 무거운 영화의 흐름에 여백을 만들어준다.

강수연 이후 20년만에 3대영화제 女優주연상

■ 한국영화 세계 무대 도전사

지난 1961년 강대진 감독의 ‘마부’가 베를린 영화제에서 특별은공상을 수상한 이후 한국 영화계는 주요 영화제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

특히 수상 실적을 살펴보면 ‘여자배우’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한국여배우 가운데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가장 먼저 수상한 배우는 강수연. 1987년 베니스영화제에서 ‘세반이’로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강수연은 1989년에는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아재야제 바라야제’로 여우주연상을 수상, 월드배우로 우뚝 섰다.

강수연에 이어 1988년에는 신혜수가 ‘아다다’로, 1991년에는 이혜숙이 ‘은마는 오지 않는다’로 같은 영화제에서 여우주

연상을 수상했다.

문소리는 2002년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로 베니스영화제 신인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03년에는 ‘바람난 가족’으로 스톡홀름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으며 2004년과 2005년에는 ‘장화, 홍련’과 ‘진절할 금자씨’의 임수정과 이영애가 각각 칸타포르토 영화제와 시체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감독들의 성과도 높다. 임권택 감독은 2002년 ‘취화선’으로 칸 영화제 감독상을 받았으며 같은 해 이창동 감독은 ‘오아시스’로 감독상을 수상했다. 또 2004년에는 김기덕 감독이 ‘사마리아’로 베를린 영화제 감독상을, ‘올드보이’의 박찬욱 감독이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다. /김미은기자 mekim@

日 농수상 의원회관서 자살 파문

정치헌금 비리 등으로 사임 압박...아베정권 타격

일본의 마쓰오카 도시카쓰(62) 농림수산상이 28일 낮 의원회관 아파트 숙소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현직 각료가 자살한 것은 처음이다.

마쓰오카 농수상은 이날 낮 12시께 도쿄도 내 아카사카의원회관 숙소 거실에서 목을 맨 채 의식불명 상태로 비서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오후 2시께 숨졌다. 정확한 자살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민과 지역구민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살을 기도했던 마쓰오카 농수상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정식 발표하면서 “농림수산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 대리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현직 각료가 자살한 것은 처음으로 아베 신조 정권에 대한 타격은 물론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마쓰오카 농수상은 그동안 임대료를 없는 의원회관에 사무실을 뒀으면서도 매년 광물비와 수도료 등 사무실 경비로 거액을 계산한 것으로 드러난 데다 농수산성 소관 독립행정법인의 사업을 수주한 구마모토현내업자가 그의 자금관리단체 등에 거액을 현금한 사실이 밝혀져 야당 측의 호된 추궁을 받았다.

마쓰오카 농수상은 자신의 부적절한 정치자금 문제가 아베 내각 지지를 하락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자민당 내에서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美-이란, 27년만에 첫 대좌

이라크 안정화 여부 조점 될 듯

미국과 이란이 28일 27년 만에 처음으로 대좌하고 공식협상을 갖는다.

라이언 크로커 주이라크 미국대사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하산 카제미-코미 주이라크 이란 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이란대표단은 이날 바그다드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이라크 사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의 인질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1980년에 이란과 외교관계를 단절했으며, 이후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 추진,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공식적인 대화를 거부해왔다.

특히 미국과 이란은 각각 이라크와 전쟁을 치른 역사가 있다는 점에서 양국이 이라크 문제를 놓고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라크도 양국의 협상을 환영하고 있으며 속적인 미국과 이란이 이라크에서 충돌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이날 회담에는 이라크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호시야르 제바리 이라크 외무장관은 이번 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발전으로 우리는 이번 협상을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의 협상일 뿐”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담에선 이란 핵개발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7년만의 역사적인 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 간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무력인 결포지역에서 해군 군사훈련을 시작했고, 이란 정부는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이란 내에 조직한 간첩망을 적발했다며 이란에서 미국의 이익대표부를 밀고 있는 스위스 대사를 추하,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미국에선 결혼이 사회계층 가른다”

英 이코노미스트 보도

미국에서 결혼이 사회계층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혼의 출산을 꺼리고, 결혼 후 이혼율도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결혼은 소득 수준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업 성적과 미래까지 결정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회가

보도했다.

결혼으로 맺어진 두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학교에서 성적이 더 좋고, 더 좋은 직업을 구하며, 부모처럼 온전한 가정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성공을 위해 이미 사회화돼 있다.

반면 편부모 결손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나쁜 학교 성적, 나쁜 직장, 혼외출산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6월 1일 첫진도 개강 광주고시학원 본원 227-8003, 첨단점 971-0002

웰빙시대의 뉴-리더 국가공인 농산물품질관리사 전국 유일의 실 강의 개강 6월 2일(토) (토, 일 주말반) A+ 현대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앞) 062)236-2467

7·9급 공무원 대 7·9급 공무원 대 = 전남 행정직 7급 21명, 9급 154명, 시험 10월 13일 시행 = 6월 1일 주야(휴일)반 모집

상가·사무실 임대 위치 8유동로터리 30m도로변, 상업지역 마지막 1층 166평 임대 (5층 중 2,3,4,5층 임대 완료) 용도 병원, 전시장, 학원, 사옥, 사무실, 대형병원, 대형식당 등 다용도 가능 임대가는 상타후 결정 문의 528-1031, H.P 016-609-1031, 017-609-7968

2007년 국가직, 지방직 시험합격= 한빛에있다! www.hanbitgosi.co.kr 7·9급 공무원 올해부터 5년간 5만명 증원 이틀반 (2개월 완성) 서울시 문제풀이 1개월 완성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6월 1일 (휴/썩수반 매월 첫진도 개강) 전남대 후문 북구청 건너편 234-0234